

景 · 景衣에 관한 연구

임 명 미

동덕 여자대학교 교수

A Study on the Wedding Veil (Kyung)

Myung-Mi Im

Professor, Dongduk Women's University

(2001. 6. 29 투고)

ABSTRACT

Kyung(景, 景衣), Which is Wedding ceremonial head dress, Veil.

Ancient China, When dynasty is changing, wedding head dress form is different.

Old china, Kyung(景) was sleeves attached dress form. But, after Dang(唐) and Song(宋) Dynasty changed square formed clothes, which is put on from head to the shoulder, and another is sleeves attached dress form.

In Japan, after Edo Dynasty, Wedding veil, which was sleeves attached dress formed, head dress cloth, Mouei(帽衣), and Piuei(被衣).

Ancient Korea have been face covered clothes. Myunuei(面衣), from Buyo(夫餘) to the south Silla(南國新羅) Dynasty.

Koryo(高麗) dynasty, likeness of the Song Dynasty square formed head wear, Mongsu(蒙首), and Kedu(蓋頭). When Chosun(朝鮮) Dynasty, Kyunguei(景衣), which was square formed 12 chuk size head wear of the blue colored veil. When King and Queen finished wedding ceremony in the another palace, Queen following the King, go to the palace, who put on the wedding veil, Kyungui(景衣), in the papanquin.

Key words: Kyung(景, 景衣), Wedding Veil, Ancient China, Mouei(帽衣), Piuei(被衣), Myunuei(面衣), Mongsu(蒙首), Kedu(蓋頭).

I. 서론

1. 연구목적

〈國婚定例〉나 〈尙房定例〉등의 儀禮書에 보면, 王室妃嬪과 公翁主의 嘉禮服 物目속에 “景衣”가 있다. 그러나 현재, 여러곳에서 再現되는 王室婚 등의 文化財 行事에 “景衣”에 대한 정확한 사용시기와 용도를 몰라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중국측 周代 史料에 보이는 嘉婚禮용 “景衣”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변형되고, 여러 가지 代用物로 대체 되기도 한다.

중·일·한 3국의 “景衣”나 그 대체물에 대한 변천을 고찰하여, 國末까지 우리나라 儀禮書의 王室嘉禮 物目に 있는 “景衣”에 대하여 정확한 사용시기와 용도를 糾明, 복식문화재의 復元作業에 미미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上古이래 근세까지,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삼국의 嘉婚禮용 儀禮書에 보이는 “景衣”와 시대에 따라서 변천되어 나타나는 “景衣” 代用物에 대한 史料, 諸學의 見解나 相關연구서, 繪圖, 전세 실물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되, 우리나라 朝鮮時代의 경우, 朝鮮時代 王室嘉禮나 士庶 婚禮用 “景”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服具로는, (1) “景衣” (2) “拍”, (3) “面紗布”, (4) “너울笠帽”, (5) “蒙首衣 : 蒙頭衣 : 長衣” 등이 있었다. 본연구는 王室嘉禮에 사용되어진 景衣에 관한 연구이므로 王室婚에서 “景衣”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며, 그제도가 어떠한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景, 景衣의 名意와 착용시기와 목적

1. 景, 景衣의 名意

〈儀禮 . 士婚禮〉에 보면, “...姆加景...”이라 나오는데, “景”, 즉 뒤에 “景衣”가 되는 이 服具는 景¹⁾ 類

²⁾, 褻³⁾, 燦, 籠, 網, 頰, 幪 등 으로도 쓰는데, 그 글자 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景”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景” 및 “景衣”의 制度를 설명하고 있는 諸學의 見解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景” 및 “景衣”는,

(1) “景” 및 “褻”, “頰”字가 絹織物 및 “穀織”을 뜻하므로,⁴⁾ 첫째, “景”은 가벼운 絹織物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2) “褻”字가, “홀”의 뜻 이므로, 둘째, “景”은 홀으로 만든 服具이다.

(3) “褻”에 대해, 頰人은 “儀禮 . 士婚禮”에 쓰인 “景”字와 같은데, 이는 “...夫人嫁側錦衣加褻襜...”에서 나온 말로서 國君夫人은 嘉禮時 錦織으로 된 禮服(翟衣)을 입으므로 錦衣 위에 “홀으로 만든 휘장 같은 것”, 즉 錦織으로 만든 휘장 같이 만든 服具인, “景”으로 禮服을 덮어 주는 것이라고 하여, “景”의 形制와 쓰임새를 설명하고 있다⁵⁾.

(4) 또, 朱子는, “褻”은, 禮記에 쓰인, “網”字와 같은데, 이 글자의 뜻은 “禪衣(홀옷의 의미)”와 같으며⁶⁾, “禪衣”는 곧 “禪襦”로, 즉 “衫”이니⁷⁾ “景”의 모양이 홀으로 만든, “衫”모양의 소매달린, “衫”을 길게 한것과 같은 長衫形이 된다.

(5) “籠”字는 麻織布를 뜻하는 글자인데⁸⁾, 麻織物로 만든 옷이라 하여, 宋代에 이르면, 비단 뿐만 아니라, 마직물로도 만드는 衣物로 “衫”모양의 소매달린 옷이 된다.

(6) “幪”은 “景”이라고도 쓰며, 부녀 出行時의 머리부터 덮어 써내리는 大幅 幪巾이다⁹⁾라 하여 方巾형의 쓰개이다.

2. 景, 景衣의 착용시기와 목적

先秦이후, 〈儀禮 . 士婚禮〉에서, 新婦에게 ‘景’을 덮어주는 이유는, 新婦가 禮를 마치고, 新郎집으로 同牢를 치루기 하여 出行時, 行道에서 防寒, 防暑, 風塵과 모래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것 등을 物理的으로 막고¹⁰⁾, 外部의 視線, 邪惡함의 浸透 등의 精神的, 心理的, 呪術的 등 여러 가지 목적의 保護 차원에서 덮어 주었을 것이나, 後代에는 儀禮的으로 착용하게 되면서 制度를 이루게 된다.

周代の〈儀禮·士婚禮〉에 관한 漢代 鄭玄의 註에 보면, 禮 당일, “..신랑이 문앞에 이르면, 女家の主人(新婦의 父親)은 祖上の 祠堂에 告하는 禮를 행한후, 떠나 보내기전, 부모는 新婦에게 타이르는 말을 내리는데, 어머니는 딸의 옷깃을 여며주고, 허리 帶에 맨 帨를 고쳐 매어주면서 타이른다.

庶母는 주머니를 허리帶에 매어주면서 타이른다. 父母님과 어른들의 訓戒를 다 받고 나서, 新婦가 떠날 차비를 한후, 수레를 타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탁자를 밟고 오르면, 乳母가 “景”을 덮어 씌워 준후, 新郎이 말을 몰고 앞으로 나아간다.”¹¹⁾

〈士婚禮〉에서 周代の “景”은 新婦가 禮를 마치고, 同牢를 위하여 新郎집으로 가려고 탈 것에 오를 때, 行道時 禦塵 등으로 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乳母가 덮어 씌워 주었으며, 新郎家の 廟堂 參拜시, 乳母가 벗겨 주었다.

國婚 嘉禮時, 皇后, 國君부인 등은, 親迎시 “..錦織으로 만든 翟衣 등을 혼례복으로 입기 때문에, 길에 홀으로 만든 “褻”을 덮어 씌워주었다.”¹²⁾

Ⅲ. 중·일·한 3국의 ‘景’의 形制.

1. 중국의 시대별 ‘景’의 形制.

‘景’의 形制는 시대별로 諸學의 견해가 각각 다르다. 시대별 “景”의 명칭과 모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先秦, 漢代, 婚禮用 ‘明衣’형 “景”과 蒙頭 蔽面형 服具, 蓋袍(被襖子)와 ‘面衣’.

(1) 婚禮用 ‘明衣’형 “景”

先秦, 漢代의 “景”은 〈儀禮·士喪禮〉에 보이는 ‘明衣’와 같다¹³⁾고 하였으니, ‘明衣’의 形制에 대하여 알아 보면,

① “明衣”는 祭禮시 行禮者나 平人이 목욕을 전후하여 입는 옷으로 “浴衣”이다.

② 論語에는, 齊나라에는 死者가 목욕후에 입는

布로 만든 浴衣의 명칭이 “明衣”이고, 모양은 無領, 無袂로 된 무릎길이 옷이라고 되어 있다¹⁴⁾.

③ “明衣”는, 魏, 晉南北朝와 隋, 唐, 宋代에 이르면, 南朝의 梁나라 에서는 목욕후 몸을 노출해 보이는 일이 없도록 布로 만든 옷을 입었는데 모양은 衫과 같으나, 길이가 길어서 長衫과 같다¹⁵⁾

④ 일본에서 18세기에 제작된 〈倭漢三才圖會〉에는, “明衣”는 生者의 “浴衣”인데, “浴衣”는 〈論語〉에 나오는 “明衣”와 같다¹⁶⁾. 論語에 나오는 明衣의 형제는 위에서 본대로 라면, 無領, 無袂로 된 무릎길이 옷이다

⑤ “景”은 〈儀禮·士喪禮〉에 보이는 ‘明衣’와 같은데, 明衣는 홀으로 만들고 안이 없으며, 소매는 屬幅으로 만들고 길이는 무릎길이로 “明衣·裳”이라고 하여, 치마와 저고리로 되어 있으며, 麻布로 만들고 死者를 목욕 시킨후 바로 입히는 옷이다.¹⁷⁾

⑥ “明衣”는 布, 麻布로 홀으로 만들고, 布를 사용할 경우는 縹緙¹⁸⁾로 만든다.

⑦ “明衣”는 無領, 無袂의 무릎길이, 무릎 아랫길이, 地面 길이의 걸치는 옷¹⁹⁾이라고 하여, 無袂라고 하는 學者도 있고, 소매는 屬幅으로 이어서 만들고 소매가 달려있다고 하니 서로 상반되며, 또한, “明衣”는 衫을 길게 한것과 같은 長衫形 通裁袍이다.²⁰⁾ 라고 하는 學者도 있고, 衣, 裳으로 구성 되어 있어서, 下體는 裳으로 깊게 감싼다.²¹⁾고 하는 學者도 있어서, 서로 모순되는 것은, 景의 形制에 대한 理解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明衣는, 生者는 목욕을 전후하여, 死者는 목욕후, 곧바로 몸에 걸쳐 입는 일종의 “浴衣”로, 각각 다른 4가지 모양으로 집약된다.

(가) 無袖, 無領의 걸치는 옷, (나) 屬幅으로 소매가 달린 通裁袍, (다) 衫을 길게 한것과 같은 長衫형, (라) 衣, 裳으로 構成된 2部式 옷²²⁾이다. 즉, “明衣”는, 生者가 沐浴을 前後하여 입고, 死者가 沐浴後 입는 옷이며, 通裁袍形에 屬幅으로 裁斷한 소매가 달려있고, 對襟이며, 무릎아래 혹은 地面길이로, 홀으로 만들어, 입고 벗기 편하게 되어있고, 親身의, 몸을 감싸 주는 유형의 옷이다. 그러나 후기에 이르면, 치마저고리형의 2부식 明衣도 있었다. 따라서 先秦이후, 漢代의 新婦禮裝으로, “明衣(浴

衣)"와 옷 모양이 같다고 한 "景"은, 通裁袍形 옷인데, 屬幅으로 裁斷한 소매가 달려있고, 옷길이는 무릎아래나 地面길이 이다. 士庶는 布로, 홀으로 만들었고, 皇后 등은 錦織으로, 홀으로 만들어, 禮服(翟衣 등)을 덮어 입던 外衣로, 머리부터 덮어 썼다. <도 1>은 史料에 보이는 "明衣" 制로 學者에 따라 文獻 記錄上의 諸 解釋이 약간씩 다르다.

(2) 婚禮用 '蓋袍(:被襖子)' 형, "景"

'明衣' 형 "景"외에, 先秦이후, 漢代부터 소매달린 外被類形의 옷으로, 명칭은 "蓋袍" 혹은 "披襖子" 라고 하는 "景"이 있었다. 이 名稱은 隋의 陽帝代부터 시작 되었지만²³⁾, 漢의 文帝가 立冬日에 承恩을 입은 宮人과 百官에게 "덧옷"을 賜與하였는데, 五色繡羅로 만들거나 錦織으로 만들었으며²⁴⁾, "蓋袍" 라고 하여, 袍위에 덮어 입는 옷이다.²⁵⁾ 경우에 따라서 머리부터 덮어 써서 입는 衣服形 쓰개류²⁶⁾였다.

(3) 婚禮用 '面衣' 형, "景"

漢代 中國에는, 우리나라 上古시대, 夫餘사람들의 衣物이었던, '面衣' 가 있었다. 漢代, "面衣"는 "金花紫輪帽"와 같이 着用하였다²⁷⁾. 이 제도가 中國의 唐宋代에 '維帽'로 발전하고, 우리나라에서는 高麗의 '침립', 朝鮮의 '너울립', 日本의 '시너립'으로 발전하며, "面衣" 단독으로 사용 될 때에는 宋이후, 中國에서는 蓋頭, 面幕, 花幕, 面紗로 불렸다. 우리나라에서는 高麗時代의 蒙首, 朝鮮의 "박(巾+白)", "面紗"가 된다. 概念上으로는 같으나, 時代別, 着用 目的別로 변형되어, 婚禮用 服具의 일종이 된 것으로 이해되어 진다.

2) 魏·晉 南北朝·隋·唐代 :

(1) 婚禮用 大幅方巾형 "幪".

隋·唐의 車服誌상의 國婚에 "景"이 있다. <儀禮·士婚禮>상의 儀式節次를 儀禮적으로 유지하면서, 士婚禮上의 "景"은 隋·唐代, 그 字形이 "幪·幪"이 된다. 隋書에, 皇后가 嘉禮時 "幪"을 착용 하였고, 皇太子妃 嘉禮時 "幪"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⁸⁾ 唐代에는 前代의 "景"字가 "幪"과 "幪"字로 바뀌는데²⁹⁾, '巾'변에 "景"字가 합성하여, 服名을 만

들어 낸것으로, '幪'의 모양이 "方巾型"으로 변모함을 意味 한다. 즉, 隋唐代, 士庶나 國婚에서 "景"의 모양이 幕羅형의 大幅方巾형으로 바뀐다. 國君夫人은 錦織으로 된 禮服(翟衣)을 입으므로 錦衣 위에 "홀으로 만든 휘장 같은", 즉 錦織으로 휘장 같이 만든 服具인, '幪'으로 머리와 禮服을 덮어 주었다.³⁰⁾ 또, 唐書 儀禮誌에는 皇后, 태자, 친왕 납비 및 품관자의 婚禮儀에 皇后, 태자비가 어머니로 부터 訓戒의 말을 들으면서, 옷깃이나 허리에 찬 佩用物을 고쳐매 받은 다음, 신분에 따라서 重翟이나 輅, 車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保姆가 머리에 "幪"을 덮어 주었다.³¹⁾ 그러나 隋唐代 王室婚에 착용된 翟衣 등의 禮服에는 帶에 수건, 주머니 등을 佩用하는 제도가 없는 것으로 보면, "옷깃이나 허리에 찬 弊玉 등의 佩用物 착용을 고쳐 받는 것"은 象徴적인 것으로 理解 되어진다.

또, 隋, 唐代에는 士庶 婦女用 혼례용 "幪"은 先秦, 漢과 달리, 布로 만들지 않고, 禪穀³²⁾으로 만들었으니, "幪"의 材質이 前代와 비교해 고급직물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魏晉이후 隋唐代 까지, 士庶婚이나 皇后나 國君夫人의 國婚嘉禮에서, 예복이나 翟衣위에, "幕羅형의 大幅方巾"형 "幪"을 덮어쓰고, 禪穀 이나 錦織으로 홀으로 만들어 착용 하였다.

(2) 婚禮用 蒙頭 蔽面형 服具, '蔽膝'형, "景"

宋代 杜佑의 <通典>에 보면, ".....南北朝時期에는 新婦의 障物이 東漢代와 달랐다. 당시에는 蔽膝³³⁾로 얼굴과 몸을 가렸는데, 만드는 재료는 紗縠이 아니었고..." 라 되었다. 즉, <儀禮·士婚禮>에서는 新婦가 얼굴을 障蔽하는 관습 이라기 보다는, 行道時 진폐물, 風雨 등으로 부터 保護의 目的으로 明衣형 덧옷인 "景"을 加한 것이었는데, 南北朝代에 이르면, 얼굴과 몸을 蔽膝처럼 된, 無袖, 外被³⁴⁾(明代 두봉형 外衣)로, 障蔽하게 된다. 段成式의 <西陽雜俎>에도, ".....女將上車, 以蔽膝 覆面," 이라 되어 있어³⁵⁾, 南北朝時代에는, 新婦나 일상적으로 여자들이 出行 上車時, 蔽膝모양의 쓰개로 얼굴을 가렸고, 대개 常用으로 착용하던 慣習이 服色을 달리하여 婚俗으로 사용됨을 볼때, "紅色의 蔽膝"류가 신부에

게 덧옷으로 덮여져 “景”을 대신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先秦代, 新婦가 行道時 “明衣” 형 “景”을 가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3) 婚禮用 蒙頭 蔽面형 服具, ‘幕羅’, ‘早羅’, ‘維帽’ 형 “景”

隋·唐代, 婚禮나 嘉禮時에 新婦가 蒙頭 蓋面하는데³⁶⁾, 婚禮時에도 사용하면서, 일상으로 사용한, 幕羅³⁷⁾, 維帽³⁸⁾, 早羅가 있었다.³⁹⁾ 幕羅, 早羅, 維帽, 등은 魏晉이후 唐代에 성행한 새로운 服具로, 경우에 따라서는 士庶의 婚禮時에 이들이 周代이후 史料에 보이는 ‘明衣’형 “景”을 대신 하였거나, 明衣形 “景”과 달리, 士庶의 婚禮時 蒙頭蓋面의 새로운 쓰개류로 착용되어 졌거나, 明衣形 “景”과 병행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婚禮用 “外被(被風)”형, “景”

隋·唐代, 婚禮나 嘉禮時에 사용된 “景”은, 당시의 명칭이 “外被”⁴⁰⁾라고 호칭되던 服具와 모양이 같았다⁴¹⁾, 唐代 “外被(被風)”에 관한 것을 보면 外被(被風)는 소매가 없는 것⁴²⁾〈도2-4.5.6〉과 있는 것⁴³⁾〈도2-7〉으로 크게 나뉘지고, 소매가 없는 것은, 前代의 士 婚禮時 사용하였던 “儻(明衣와 同形制)”과는 다르고, 소매가 있는 것은 ‘明衣’형 “景”과 유사하였다. 隋·唐代에 婚禮時 儀禮 目的用, 防寒과 遮陽, 藏身隱蔽, 行道時 風塵으로 부터 身體保護 등의 목적으로 착용하는 衣類는, ‘明衣’형 “儻”과 대폭 방견형 “幕羅”와 漢代 輪帽와 面衣, 당대의 입모와 幕羅가 합하여 창제된 것으로 보이는 “維帽”, “早羅(頭巾)” 등이 있었고, 被風〈도2-8〉類型的 外被와 소매가 달린 “被襖子”형 外被⁴⁴⁾가 있었다.

士庶婚에서 唐初期에서 測天武后時까지는, 先秦이후 漢代까지의 “明衣”와 形制가 같은 “儻”이나 “披襖子”를 禪穀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測天武后時 이후에는 경우와 여건에 따라서, 大幅 方巾형, 幕羅, 維帽, 早羅 등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國婚 嘉禮에서는 翟衣위에, 周代의 “明衣”와 形制가 같은 外被형 “儻”을, 홑으로, 錦織으로 만들어 착용하였다.

3) 宋代: 婚禮用 大幅 方巾型 “幌”, 蓋頭, 面幕, 花幕, 형 “景”

(1) 婚禮用 大幅 方巾型 “幌”

五代의 混亂期를 거치고 宋代에 이르면, 諸般 禮制를 新定하는데, 宋代에 이르면, 周代의 明衣형 “景”이 변형되어 새로운 형이 등장한다. 周代〈儀禮·士婚禮〉상의 新婦禮裝이나 탈것이 宋代의 新婦禮裝이나 탈것과 달라진다. 新婦의 裝束과 탈것의 구조가 달라지므로 儀禮節次상의 儀俗이 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景”의 내용이 달라진다.

周代의〈儀禮·士婚禮〉에서 신부의 盛裝을 보면, 次(머리 首飾)를 하고, 옷은 위와 아래가 連接된 純衣(衽衣)⁴⁵⁾를 입는다. 허리에는 帶(緣飾과 같은색)를 하여 여미고, 帶에는 幌(세 : 수건)와 鬢(반 : 주머니)등을 매달았다. 婚禮儀式에 따라서 신부가 醮誠之禮를 마치고, 車에 오르려고 계단을 내려 가면, 어머니는 옷깃 여밈과 幌를 고쳐 매주면서, 당부의 말을 하고, 諸母는 鬢을 만져 주면서 당부의 말을 한다. 수레에 올라 几에 앉으면, 보모가 “景”을 덮어주었다. 周代의〈儀禮·士婚禮〉에 보이는, 新婦의 탈 것은 수레 둘레 네기등에 揮幌이 드리워지고 덮개를 덮는, 소나 말이 끄는 수레였다.⁴⁶⁾

그러나 宋代의 경우, 朱子の〈文公家禮〉에 보면, 士庶婚禮에서 新婦의 盛裝은, 머리에는 관모(花冠類)를 쓰고, 옷은 衫·長裙을 입고, 그 위에 당시의 時俗에 따라서, 對襟, 無袖이며, 치마 길이로, 양옆이 거드랑이 이하에 트임을 준, 幌⁴⁷⁾를 衫·裙 위에 입었다.⁴⁸⁾

신부가 혼례시 장식용 “冠帽”를 머리에 쓰고, 衫·裙위에 “幌”⁴⁹⁾를 차려 입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冠을 바로 잡아주고, 幌 입을새를 고쳐 주면서 훈계를 하고, 諸母들은 치마·저고리를 매만져 주면서, 訓戒의 말을 하였다. 그후 乳母는 신부를 탈 것 있는 곳까지 引導 하는데, 宋代, 新婦의 탈것은, 3면이 막히고 1면은 드나드는 곳에 簾이 드리워진 轎子로, 교자 매는 사람들이 어깨에 매고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탈것이였다. 簾이 드리워져 있어서⁵⁰⁾, 新郎은 轎子 앞에서 簾을 걷어 올려놓고 신부를 기다렸다. 신부가 탈것에 타면, 乳母가 신부에게 蓋頭(花幕)를 씌워 주고, 신랑의 집에 도착하여 行禮하기 前에

벗겨주었다.⁵¹⁾

위에서 보면, 保姆가 新婦에게 “景”을 씌워주는 대신, “蓋頭”라고 하는 衣物을 씌운다.

宋代에는 이 “蓋頭”를 일상에서나, 士庶의 婚禮, 帝王 納妃時 등 의례목적이나, 防寒, 遮陽, 藏身隱蔽, 行道時 風塵으로 부터 身體保護 등의 목적으로 착용하였다.

宋의 杜佑의 〈通典〉에 보면, “蓋頭는 東漢이래 結婚時 紗縠으로 만들어서 여자의 머리에 덮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宋代 婚禮時에 “蓋頭”라고 하는 쓸 것을 머리부터 덮어 내려쓰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2) “蓋頭, 面幕〈도2-2〉, 花幕, 형, “景”

宋史에서 國婚 聘禮物目에 보면, 즉, 宋 太平興國 7년, 春정월, 婚娶의 제도를 定하였는데, 帝王의 嘉禮시 聘禮物중에 왕비의 머리에 쓰는 “花幕(蓋頭)”이 들어있다.⁵²⁾

송대 “蓋頭”의 모양을 이해하기 위하여 諸學의 見解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蓋頭”는 “머리를 덮어쓰는 것”이라는 意味의 글자로, 早羅로 만든 方 5尺⁵³⁾ 크기의 천으로 된 부녀자용 頭巾이다.⁵⁴⁾ 당시의 習俗으로 부녀자들이 出行時, 方幅의 紫羅로 된 巾으로 몸의 半身을 가렸는데, 이것을 “蓋頭”라고 하였다.⁵⁵⁾ 개두는 “蓋巾”이라고 稱하기도 하고, 新婦의 出嫁時에 蒙頭 蓋面하는 巾帛을 말하였다. 巾은 經紗로 만들고 길이가 길거나 方形이다. 色은 대개 紅色이다.

② 蓋頭는 唐初 宮人들이 쓰던 幕離이다. 曩離가 宋代에 “蓋頭”가 되었다.⁵⁶⁾ “蓋頭”는 幕離方巾 종류로, “幕”⁵⁷⁾은 大幅方巾인데⁵⁸⁾, 幕離는 일종의 얼굴과 上半身을 덮는 巾이다. 일상용은 주로 黑色의 紗·羅로 만들었다. 착용시는 머리 꼭대기부터 덮어 쓴다. 그래서 착용 하고 나면, 앞자락은 앞가슴 부위, 뒤는 등뒤에 느러진다. 얼굴 부위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서 눈과 코를 露出 할수 있도록 되어있는 모양도 있었다.

③ 蓋頭는 일상적으로 집안에서 착용하는 “風帽”와 같고⁵⁹⁾ 외출시 얼굴과 상반신을 은폐하는 “面幕”과 같았고 一幅布로 만든, 四方形巾이다.⁶⁰⁾

④ 蓋頭의 一種인 花幕은, 花羅로 만든 大幅方巾으로, 宋代에는 帝王의 納妃 嘉禮時 머리에 쓰는 것으로 定例化 하였다.⁶¹⁾

이상을 정리하면, 宋代에 이르러서 〈儀禮·士婚禮〉시에 신부용 덮개였던 ‘景’은 그 명칭이 ‘蓋頭’로 바뀌며, 宋代, 嘉禮나 婚禮時 평서민 부녀나 帝王의 納妃時 皇后가 蓋頭, 花幕을 착용하는 것을 定例化 하였다.

모양은 150*150센티 방형 크기의 부녀자용 頭巾이다. 일상용은 早色이나 짙은색 紗·羅로 만들고, 머리에 접어 올려 두기도 하였고, 〈도2-1〉 婚禮時에는 紅色이나 花羅로 만들었고, 蓋頭, 面幕, 花幕 등으로 呼稱 되었다. 先秦, 漢 이후, 唐代的 “明衣”와 같은 모양으로 된, 布, 麻布, 錦織 등으로 홀으로 만들고, 屬幅의 소매를 달았던, 長衫形과 다르다. 宋代 ‘景’은 唐代的 全身 障蔽形 方巾인 幕離를 변형시켜 만든 것으로, 착용시, 머리에 덮어써서 얼굴을 덮고, 앞은 가슴부위, 뒤는 등뒤에 위치하게 착용하였다. 〈도1-7.8〉은 宋代에 周代以後, 漢代 史料에 보이는 ‘明衣’형 ‘景衣’와 ‘褕衣’를 圖式化 한 것으로, 儀禮書 解釋 學者들의 견해의 일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考察한, 머리에서 부터 덮어 내려서, 얼굴과 上半身을 가려주는 障蔽形의 方巾形 蓋頭와는 다르며, 深衣形 袍制인것은 周代, 〈儀禮·士婚禮〉에 보이는 ‘景’을 근거로 陳祥道가 해석한 “景”의 일례이다.

4) 明·清代

(1) 婚禮用 大幅 方巾型 “幃”

明·清代는 주로 당, 송대의 제도를 답습한 것으로, “蓋頭” ‘塔面’으로 呼稱 되었다. 〈도2-3〉은 大幅 方形巾형이다. 明會典에서 보면, 洪武 3년 定, 品官, 庶人, 婚娶禮의 의식 절차는, 〈儀禮·士婚禮〉에서의 의식 절차와 같다. 그러나, 父母의 訓戒之禮 후 탈 것을 탈때에, “景”을 씌워주는 의식의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⁶²⁾ 그러나 〈儀禮·士婚禮〉식 의례 節次대로 라면, 신부가 어머니의 훈계를 듣고, 탈것을 타고 앞으면, 보모가 “景”類를 씌워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洪武 26년 定, 親王 大婚禮와 公主下嫁儀에서 公

主下嫁儀를 보면⁶³⁾, 公主가 父母인 皇帝와 皇后의 訓戒之禮를 마친후, 의례대로 라면, 공주가 輦를 타기 전, 駙馬가 輦子の 발(簾)을 걷어줄 때, 女官이 사양의 말을 하면서, 공주가 輦를 타고 앉으면, '景'을 씌워주고, 駙馬家の 祠堂에 參拜시 "景"을 벗겨주도록 되어 있으나,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輦를 타고 앉으면, 여관이 "景"類를 씌워주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洪武 27년 定, 親王納妃之禮를 보면⁶⁴⁾, 왕이 簾을 걷어올려 기다려주고, 妃가 乘輦時 內官이 "景"을 덮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輦(輦)를 타기전에 "景"류를 씌워주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神宗 萬曆 6년(1578)에 新定한 納后儀를 보면⁶⁵⁾, 홍무 3, 26, 27년정, 婚禮儀와 달리 "...施衿結稅..."라 있어 周代의 <儀禮·士婚禮>에서와 같이 어머니가 혼계의 말을 하면서 "옷깃을 여며주고 패용한 수건을 묶어 주는" 등의 의례적인 행동을 하나, 后가 친영시 착용하는 의례복은 翟衣이며, 翟衣의 構成에는 "幌"의 佩用制度가 없어, 이는 상징적인 의미로 의식 절차속에 포함시킨 기록 일것으로 생각되며, 황후가 乘輿輦時 女官이 <儀禮·士婚禮>식 의례 節次대로 라면, 明式 "景"인 "蓋頭"를 덮어 주는 의례적인 행동이 있어야 할것이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輦(輦)을 타고 앉으면, 여관이나 집사자가 "景"류를 씌워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明代의 "景"은 宋代의 '蓋頭'와 같은 제도였고, "鎖金蓋頭"를 新婦가 出嫁시 착용하는데, 이를 '大幅面巾'이라 한다⁶⁶⁾하니, <周禮>의 혼례복용 服具에는 없는, "鎖金蓋頭(面紗)"를 신부에게 덮어 씌워 주었으며, 신부의 승용물이 宋代와 같고, 周代와 달라졌으므로, <儀禮·士婚禮>에 보이는 '景'이 변형되었고, 그래서, 의례절차에 기록하지 않은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상의 고찰로서, 明代의 혼례용 '景'을 짐작할수 있겠다.

(2) 婚禮用, "蓋頭, 塔面" <도2-3>형, "景"

清代의 "景"은 明의 제도와 과 같으나 '蓋頭', '塔面'으로 呼稱 되었고, 宋, 明과 마찬가지로 大幅 方形巾인데, 婚禮時 新婦가 머리에서 덮어 내려서 착용

하는 帛巾이다. 신부용 搭面⁶⁷⁾은 紅色의 布帛으로 만든 것이 일반적이며, 男家에 도착하여 祠堂에 參拜時, 保母가 벗겨 주었다.⁶⁸⁾ 薄羅와 網紗로 주로 만들었다.

이상의 고찰결과를 종합하면, 상고시대의 "景"은, 婚禮行道時 風塵과 모래 바람으로부터 신체를 物理的으로 막고, 外部의 視線, 邪惡함의 浸透 등의 정신적, 심리적, 呪術的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덮어 썼을 것이나, 후기의 의례에서는 신부의 탈것과 의식의 순서, 新婦盛裝의 구성내용이 달라졌으므로 <儀禮·士婚禮>에서 보는것과 같은 "景"을 씌워주는 行禮는 변하고, 時俗을 따라 개두, 화막, 면막, 탑면, 면사포 유형의 蒙(蓋)頭 蔽面型으로 집약되어 변용 된것으로 보인다.

2. 일본의 景·景衣 : 被衣, 帽衣.

일본에는 婚禮時 儀禮나, 防寒, 防暑, 防蟲, 風塵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佩面, 全身 障蔽形 服具類로 被衣(帽衣 : 가누카쓰기)⁶⁹⁾, <도3> 市女笠⁷⁰⁾,

<도4>, 壺裝束⁷¹⁾<도5>등의 佩面, 全身 障蔽形 服具類가 사용되었다.

에도(江戶)시대⁷²⁾, 婚禮時에는 '被衣'를 머리부터 덮어써서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障蔽하였다. 婚禮시 착용하는 쓰개류를 "帽衣" 혹은 "被衣"라고 하였는데, 일본에서는 에도시대에 이르러서 이 '被衣'를 婚禮時에 중국측 禮書類에 보이는 "景"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被衣"는 상류층의 婚禮 등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이 限定 되었었기 때문에, 평민들은 흰 끈이 달린 菅笠(스가가사)을 婚禮時에 사용하다가 綿帽子로 대체 하였고⁷³⁾, 婚禮 목적을 떠나서 나중에는 일반적으로 여성용 佩面, 障蔽用 쓰개류가 되었다⁷⁴⁾. 이 "帽衣" 혹은 "被衣"⁷⁵⁾는 머리에서 부터 덮어 써서, 온몸을 감싸 덮는 복식의 일종이다. "被衣"는 일본말로 '가누카쓰기'라고 하는데, "쓰기"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의 "쓰개"류에서 전해졌거나, 일본에 정착, 歸化한 삼국시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쓰기" 혹은 "쓰개"라는 말의 遺習이 傳來되어서 그 服飾名稱속에 남

겨졌을 것으로 理解 되어진다. '被衣' 풍습은, 처음에는 궁중에서 궁녀들이 착용하기 시작 하던것을 부유한 商人들의 부인들도 모방하여 착용하기 시작하였고, 上流層 階級을 중심으로 계속 착용되어 지다가, 후지와라(藤原 : 858-1017)⁷⁶⁾, 가마구라(鎌倉 : 1192-1333) 시대⁷⁷⁾에 이르러서는, 서민여자들도 외출시에 "小袖"⁷⁸⁾〈도3-3.4〉 한 장을 머리에서부터 덮어쓰는 풍습이 일반화 되었다.⁷⁹⁾ 이때, 單衣인 小袖를 머리부터 덮어 썼기 때문에 '被衣'라고 부르기 시작 하였으며, 이처럼 옷을 머리에 덮어쓰는 풍습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중국측 史料에 보이는 漢 文帝 代의 '蓋袍', '披襖子'가 우리나라, 삼국시대나 南國新羅時代, 高麗時代에 유입되어, 조선의 '蒙首衣', '長衣'가 되었고, 삼국시대 후기나 南國新羅時代 즈음하여 일본에 전해져서, 후지와라(藤原), 가마구라(鎌倉) 幕府시대 부터 민간에서도 사용 되다가, 후세 까지 계속되어, 에도시대가 되면서 '被衣'라는 하나의 特定服飾을 형성하고 걸옷이 된 것이다.⁸⁰⁾ 公家, 武家⁸¹⁾ 그리고 平庶民 여성에게도 널리 사용되었다. 정식으로 의복의 일종을 형성하여 "帽衣(被衣)"가 되면서, 에도시대에는 婚禮用 '景'의 목적으로, 착용하게 된 것이다. '被衣'를 착용할때는 머리 위에 "上綿"을 얹고, 그위에 "被衣止"라고 하는 비녀를 꽂아⁸²⁾, 〈도6-1.2〉, 윗부분을 들어 올려 주어서 얼굴과 被衣가 밀착되는 것을 막고, 착용시, 깊이를 조절하였다.⁸³⁾ 公家風習의 被衣의 특징은, 깃이 어깨에서 16센티 가량 내려서 옷을 만든 것으로⁸⁴⁾, 이 "被衣"는, 중국측 史料에 보이는 "明衣"나 "浴衣"와 그 形制가 같고, 또 일본의 평서민용 "被衣"가 평서민의 "小袖"에서 발전 한것이며, "小袖"는 "明衣"와 같은, "浴衣"〈도1-6〉에서 발전 하였으며, "明衣"는 〈儀禮 士婚禮〉에 보이는 "景"과 같다고 하였으니, "被衣"가 婚禮용 덧옷이 되는 名分이 明確해진 論證이라고 하겠다.

3. 韓國의 嘉禮用 "景"·"景衣"

1) 上古以後 南國新羅期까지 : 婚禮用 "面衣".
夫餘 사람들은 왕의 葬禮시 玉匣을 사용하며⁸⁵⁾, 居喪時에 부인들은 布로 만든 "面衣"를 착용하였

다.⁸⁶⁾ 상고시대 부터 우리나라 부녀자들이 착용하는 얼굴을 가리는 "面衣"가 있었다. 〈도1-11〉. 이는 〈禮記〉內側에 "...女子出門, 必擁蔽其面.."이라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당시의 時俗대로, 夫餘사람들은 외출시 얼굴에 面衣를 착용하였고, 喪時에는 삼베 직물 등으로 만들어 착용하였으며, 婚禮 등에서는 紅色의 비단으로 만들어서 新婦가 얼굴이나 全身을 障蔽하는 습속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 되어지며, 삼국이후 남국신라 시기에 夫餘의 遺習대로 士庶의 婚禮用 이나 王室 嘉禮用 으로 '景' 類形의 衣類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高麗時代 : 婚禮用 蓋頭, 花幕, 面幕(蒙首 : 袞裳), 幘笠

高麗에는 夫餘, 三國이래 南,北國 時代를 거쳐 傳承되어온 禮制가 있었고, 高麗 文宗 25(1071)년-인종 4년(1126) 사이에 宋의 儒敎禮의 禮制에 입각하여 국가 통치기반에 필요한 제반제도를 수용, 제도를 再 確立 하였다. 특히 文宗은 26년, 禮服制度를 再 改定하는데⁸⁷⁾, 이때, 高麗는 宋의 諸般 禮制를 전반적으로 收容 하였다.

고려사 嘉禮부분 公主下嫁儀⁸⁸⁾에 公主가 父母인 皇帝와 皇后의 訓戒之禮를 마친후, 先秦이래, 宋, 明式 儀禮 대로 라면, 公主가 輦을 타려고 할때, 駙馬가 轎子의 簾을 걸어주고, 公主가 자리에 앉으면, 女官이 '景'을 씌워주고, 祠堂에 參拜시 "景"을 벗겨주도록 되어 있으나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記錄에 보이지 않는 것은 기록상의 省略일수도 있고, 記錄은 보이지 않으나, 탈것을 타고 앉으면, 蓋頭(蒙首)형 "景"류를 씌워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니면, 宋式 "蓋頭"를 이미 親迎禮 施行前에 禮服의 一襲으로, 面紗布⁸⁹⁾모양의 쓰개를 덮어 쓰고 있는 상태이므로, 다시 "景"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公主는 禮畢後 燕居用 冠服⁹⁰⁾으로 바꾸어 입는다. 高麗時代는 王室婚이나 士庶의 婚禮時, 新婦가 착용하는 '景'은 중국의 先秦이후 漢代, 〈儀禮·士婚禮〉에 보이는 소매달린 "明衣"유형 '景'이나, 唐代의 "外被" 類型이라기 보다는, 宋代의 新婦용 方巾形 '蓋頭'(面幕, 花幕), 고려의 '蒙首'형 "景"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婚禮儀禮에서의

使用例는 文獻記錄상으로 찾아 볼수가 없으나 唐, 宋式, 全身 혹은 上半身 障蔽형 服具類와 幘笠 등이, 高麗에 있었던 것을, 史料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즉, 宋使, 徐兢(1123)의 <高麗圖經>에 보이는 高麗 婦女子用 “蒙首”⁹¹⁾는, 唐의 “霧離”, 宋代 “蓋頭”와 같은 종류의 全身障蔽形 쓰개류이다. 防寒, 遮陽, 藏身隱蔽, 行道時 風塵으로 부터 身體保護 등의 목적으로 착용하였고, “宋에서의 名稱은 蓋頭”였다. 徐兢은 이를 “머리를 덮어쓰는 물건”이라는 意味로, “蒙首”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高麗 사람들 가운데는, “蒙首”를 “袞裳”라고 호칭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다.⁹²⁾ 모양이 方形이며, 스님이 어깨에 걸치는 袞裳와 비슷하므로, 이와 같은 “蒙首”를 一名 “袞裳”라고도 하였던 것으로 이해되어 진다. 고려 시대 귀부인용 “蒙首”는 宋의 “蓋頭”가 方形 5尺⁹³⁾ 크기로, 着用時 앞은 가슴부위, 뒤는 등뒤에 위치 하는것과 달리, 全身障蔽形으로 3폭⁹⁴⁾에 8尺 (240센티)⁹⁵⁾길이의 직사각형 천을 頂首리에 쓰고, 양쪽으로 느리면, 120센티가 양쪽으로 내려 드리워 졌을것으로 추정되는데, 착용자의 신체 치수에 따라서, 150센티 이상의 부녀자가 앞의 치수대로 만든 蒙首를 착용하면 蒙首는 무릎아래에 위치하게 되며, 王妃 등 귀부인들이 더욱 많은 옷감을 사용하여 만들었을 것이므로, 地面에 끌리는 길이 일 경우, 10-12척(300-350센티) 이상의 크기 었을 수도 있다. 人體의 치수에 따라서, 머리에 써서 온몸을 충분히 감싸고, 地面을 끄는 形이면서, 얼굴과 눈을 내어 놓을 수 있는 형의 쓰개류는, 高麗王朝 존속기간과 同時代인, 일본의 幕府時代에도 착용되어져 盛行한 여자용 被衣(幘衣)와 모양이나 착용모습이 유사하거나 高麗의 蒙首와 同一한것이였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고려 賤使의 경우⁹⁶⁾, 일을 하는데 불편하므로, 작업도중에는 <도2-1>에서 보는 宋代의 制度, 조선후기의 制度와 같이 머리에 접어 올려두었다. 부인들이 出行時에는 騎馬 하였으므로, 머리에 쓴 검은색 絹織 蒙首는 말의 등에 그 길이가 머물렀을 것이며⁹⁷⁾, 蒙首위에는 遮陽의 목적으로 笠帽를 착용 하였을 것인데,⁹⁸⁾ 郊外 出行時에는, 防寒, 風塵방지 등의 목적으로, 소매달린 “外被”인, “露衣”⁹⁹⁾를 입고, 머

리에는 寒氣와 昆蟲의 침해 방지목적용 幘帽(幘裙 : 너울)을 드리운, “幘笠”¹⁰⁰⁾을 썼다.¹⁰¹⁾ 幘笠은, 앞에서 본것과 같이, 漢代의 輪帽와 面衣, 唐代의 霧離와 笠, 양자가 결합되어 創製 된것으로, 幘笠을 쓰고 그 위에 다시 笠帽를 쓰는 것 보다는 笠帽에 幘裙을 드리워, 閉面과 遮陽, 蟲害, 風塵防止의 多目的의 性을 지녀, 특히 遠거러 出行時, 보다 실용적이다. 唐, 宋代의 維帽制와 같고, 日本의 鎌倉시대에 市女笠에 무시노 다레기누를 드리워 寒氣와 昆蟲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착용하였던 幘笠帽制와 같은, 幘笠을 高麗시대에 착용하였던 것이다. <도 4-1>.

朝鮮은 高麗의 制度를 답습하여, 國末까지 王室 家禮時 王妃나 嬪의 衣襟를 構成하는 “너울립, 露衣”着用制의 制度를 形成하는데, 이는, 高麗史所在, 公主下嫁儀의 公주가 禮畢後 바뀌입는 燕居冠服이혹시 ‘幘笠과 露衣’제 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리하여 조선의 <國婚定例>에서도 왕비나 세자빈의 衣襟 속에 너울립과 露衣가 포함 된 것이 아닌지..... 그리하여 面紗와 너울이 같이 착용하도록 되어져 있었으므로, 公주가 同牢를 위하여 母부의 집으로 이동시 ‘景’을 새로이 더하여 착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추정하는 바이다.

3) 朝鮮시대 王室 嘉禮用 “景衣”

中國측 禮書類와 宋·明의 儒教禮의 集禮類는 조선초기, 통치 질서확립의 기틀이 되었다. 특히 고려 중기이후에 도입된 宋의 朱子學은 우리나라 國政 統治者와 선비, 유생, 학자, 사회전반의 지배이념인, 道德과 思想, 行動舉止 일체를 통제하는 사상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朝鮮時代 王室嘉禮나 士庶 婚禮用 “景”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服具로는, (1) “景衣” (2) “拍”, (3) “面紗布”, (4) “너울笠帽”, (5) “蒙首衣 : 蒙頭衣 : 長衣” 등이 있었다. 본연구는 王室嘉禮에 사용되어진 景衣에 관한 연구이므로 王室婚에서 “景衣”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며, 그제도가 어떠한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王室 嘉禮用 “景衣”

‘景衣’¹⁰²⁾는 조선의 王室嘉禮인 國婚에서, 6禮중

타고 앉으면, 傳母가 “景衣”를 덮어 씌워준다.

世子嬪 嘉禮時의 “景衣”의 소요량과 服色등에 대하여 보면 <표2>와 같다. 여기서 보면, 色은 한결같이 王妃의 景衣 服色과 같이 藍色, 紗, 12척으로 만들었다. 鴉青色인 世子嬪 法服인 翟衣에 대하여, “景衣”의 色이 藍色으로 되어 있는데, 왕비의 경우, 相生하는 服色으로 하여 藍色으로 하였으나 세자빈의 경우, 法服인 翟衣의 鴉青과 同一系列의 藍色으로 “景衣”色이 되어 있다.

신적, 심리적, 呪術的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덮어 썼으나, 後期의 儀禮에서는 新婦의 탈것과 儀式의 順序, 新婦盛裝의 구성내용이 달라졌으므로 <儀禮·士婚禮>에서 보는 것과 같은 “景”을 씌워주는 行禮는 변하고, 時俗을 따라 蓋頭, 花幕, 面幕, 塔面, 面紗布 유형의 蒙(蓋)頭 閉面형으로 집약되어 변용된 “景”을 쓰게 된다.

2. 일본의 경우, 婚禮時 儀禮나, 防寒, 防暑, 防蟲, 風塵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佩面, 全身 障蔽

<표 2> 세자빈 가례시 景衣의 복색과 의차 所要치수 114)

嬪 년도	소현 세자빈 (1627)	현종 명성후 (1651)	숙종 인경후 (1671)	경종 단자후 (1696)	경종 선자후 (1718)	진종 효순후 (1727)	장조 현경후 (1744)	문조 신정후 (1819)	순종 순명후 (1882)
衣次	藍紗	藍紗	”	藍紗	藍紗	藍紗	藍紗	藍廣紗	藍廣紗
置數	12尺	12尺	12尺	12尺	12尺	12尺	12尺	12尺	12尺
縫絲	藍絲 1錢	藍絲 1錢	藍絲 1錢	藍絲 1錢	藍絲 1錢	藍絲 1錢	藍絲 1錢	藍絲 1錢	藍絲 1錢

IV. 結 論

이 논문은 중,일,한 3국의 儀禮書, 嘉禮都監儀軌 등에 보이나 그 명확한 제도와 使用例를 알지 못하여 文化財로서 傳統服飾의 復元에 缺失되고 있는 婚禮用 衣物의 하나인 “景衣”의 制度와 形制, 使用法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1. 중국의 경우, <儀禮·士婚禮>에 나오는 “景”, 즉 뒤에 “景衣”가 되는 이 婚禮用 服具는, 시대별로 諸學의 견해가 각각 다르다. (1) 先秦이후, <儀禮·士婚禮>에서는 方巾形이다. (2) 晉代에는 <儀禮·士喪禮>에 보이는 ‘明衣’와 같다. (3) 魏晉 南北朝 隋, 唐代에는 ‘蔽膝’ “外被(被風)” “霧離” 와 같다. (4) 宋代에는 ‘蓋頭’, ‘帷裳’, ‘花幕’, “面幕”과 같다. (5) 明, 清代에는 ‘蓋頭’, ‘塔面’, ‘斗篷(被風)’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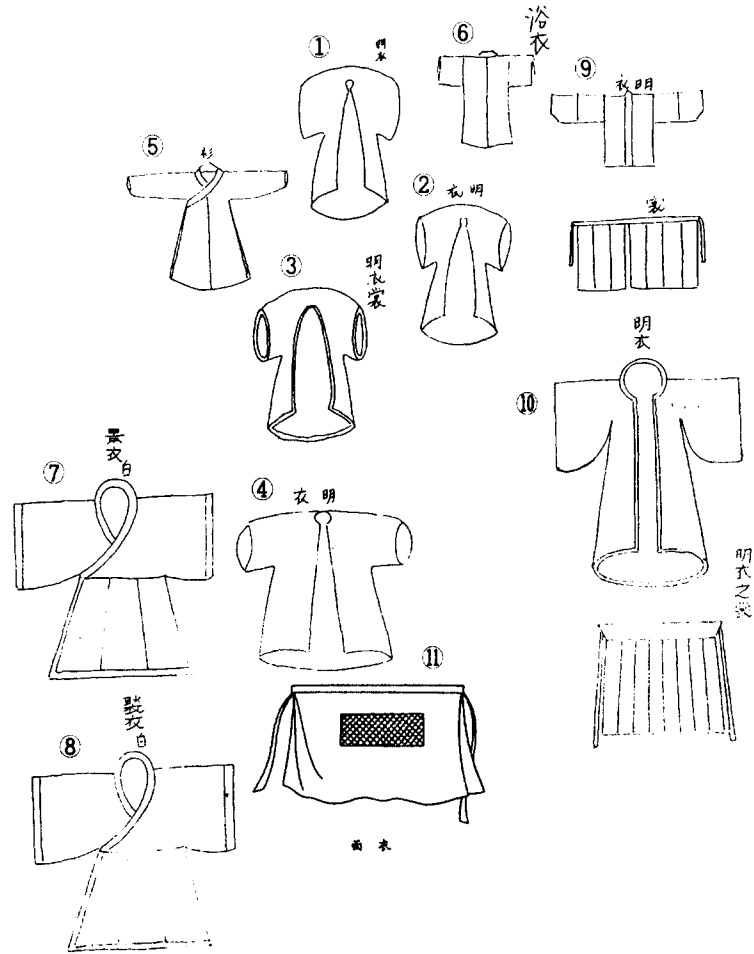
“景”은 婚禮時 新婦가 머리부터 덮어 내려서 착용하는 帛巾이다. 신부용은 紅色의 布帛으로 만든 것이 일반적이며, 男家에 도착하여 祠堂에 參拜時, 保姆가 벗겨 주었다. 상고시대에는 婚禮行道時 風塵과 모래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것 등을 物理的으로 막고, 外部의 視線, 邪惡함의 浸透 등의 障

形 服具類로 被衣, 市女笠, 壺裝束등의 佩面, 全身 障蔽形 服具類가 있었다. 에도시대, 婚禮時에 “帽衣” 혹은 “被衣”를 중국측 禮書類에 보이는 “景”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被衣”는 상류층의 婚禮 등에만 사용이 限定 되었었기 때문에, 平民들은 흰 끈이 달린 菅笠(스가가사)을 婚禮時에 사용하다가 綿帽子로 대체 하였다.

3. 한국의 경우, (1) 夫餘 사람들은 居喪時에 부인들은 布로 만든 “面衣”를 착용하였고 외출시 얼굴에 面衣를 착용하였고, 喪時에는 삼베 직물 등으로 만들어 착용하였음을 볼 때, 婚禮 등에서는 紅色의 비단으로 만들어서 新婦가 얼굴이나 全身을 障蔽하는 습속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삼국이후 남국신라 시기에도 夫餘의 遺習과 唐으로 부터 수용한 士庶나 王室 嘉禮用으로 “景”類形의 衣類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高麗時代는 王室이나 士庶의 婚禮時, 新婦가 착용하는 ‘景’은 先秦이후 漢代, <儀禮·士婚禮>에 보이는 소매달린 “明衣”유형 ‘景’이나, 唐代의 “外被”類型이라기 보다는, 宋代의 新婦용 方巾形 ‘蓋頭’(面幕, 花幕)인, 高麗의 “蒙首”형 “景”을 덮어 썼다. (4) 조선후기 이후, 三揀擇에

뽐힌 豫備 王妃를 別宮으로 모셔놓고, 宮中法度を 미리 禮行 연습시켰다. 別宮에서 妃나 嬪이 親迎儀를 마친 후, 保姆가 씌워준 "景"을 쓴 채 輦을 타고, 同日저녁에 同牢宴을 치르기 위해서 대궐로 모셔온다. 嘉禮班次圖에 王妃가 "景"을 쓰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輦 안에는 王妃가 "景"을 덮어쓰고 앉아 있다. (5)〈國婚定例〉와 〈尙房定例〉를 통해서 보면, 〈儀禮, 士婚禮〉에 "景"으로 되어 있는 服具는, 우리나라 에서는 그 명칭이 "景衣"로 바뀌어 하나의 '衣服'으로 표명된다. 色은 藍色이며, 재료는 紗

이고, 소요치수는 廣紗 12척으로 만든 大幅方巾形이다. "景衣"가 王妃 嘉禮에서 藍色인 것은 紅色의 法服인 翟衣에 相生하는 服色으로 하여 藍色인것으로 이해되어 진다. (6) 世子嬪 嘉禮時의 "景衣"도 왕비의 경우와 같이, 色은 藍色, 紗, 12척으로 만들었다. 鴉青色인 世子嬪 法服인 翟衣에 대하여, "景衣"의 色이 藍色으로 되어 있는데, 왕비의 경우, 相生하는 服色으로 하여 藍色으로 하였으나 세자빈의 경우, 法服인 翟衣의 鴉靑과 同一系 藍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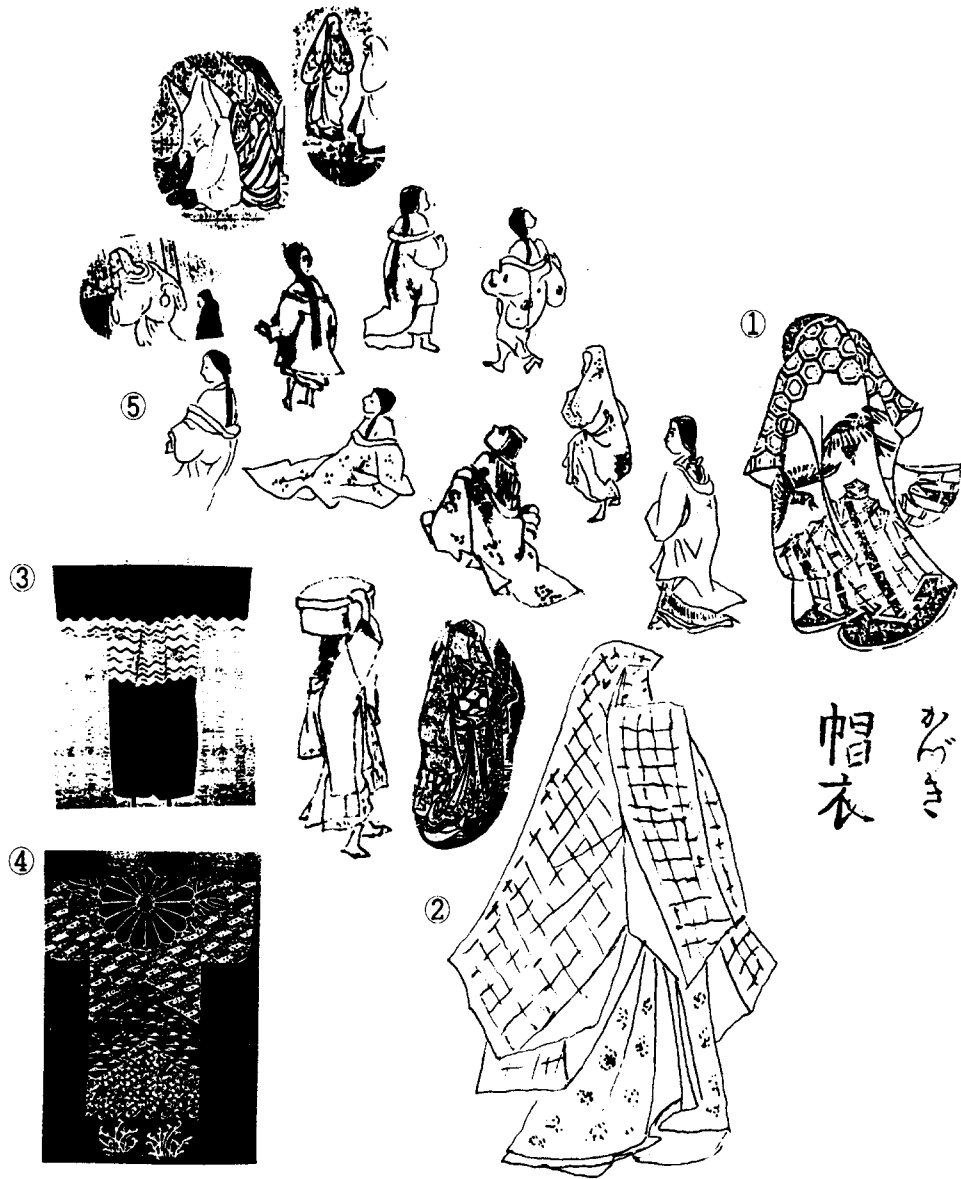
<도 1> 史料에 보이는 明衣의 形制.

1. 明衣, 古今圖書集成.
2. 明衣, 三禮圖.
3. 明衣, 장순식, 앞책.
4. 明衣, 흥정, 禮記圖.
5. 衫, 古今圖書集成, 禮儀 36권, 의복부.
6. 浴衣, 漢倭 삼제도회.
7. 景衣, 禮書, 권지, 18.
8. 景衣, 禮書, 권지, 18.
9. 明衣와 裳, 임명미, (1996), 553.
10. 景衣, 禮書, 권지, 18.
11. 面衣, 삼제도회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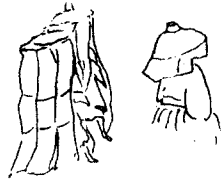
<도 2> 중국의 景衣類.

- 1.南宋代 이고필, 蓋頭를 머리에 인 부인, 심중문,
- 2.南宋代 蓋頭, 蒙首 착용부녀, 중국문물 5000년, 복식편.
- 3.혼례시 搭面 착용 부녀, 주신, 고춘명, 중국의복식 대관.
- 4.唐代 儀衛用 外被, 소릉복식, 5.6.外被,
7. 明代의 斗縫. 주신, 고춘명, 앞책, 190.
8. 清代의 被風. 바로앞책,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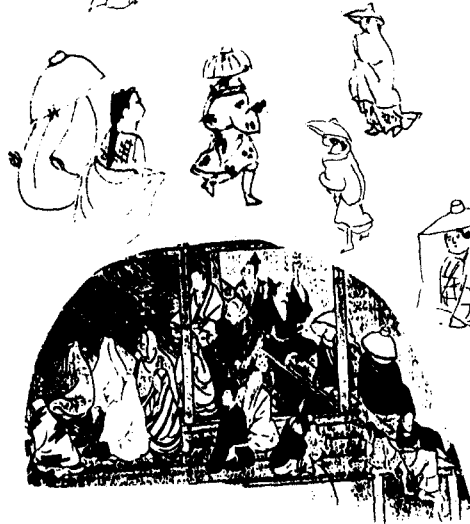


<도 3> 일본의 帽衣, 被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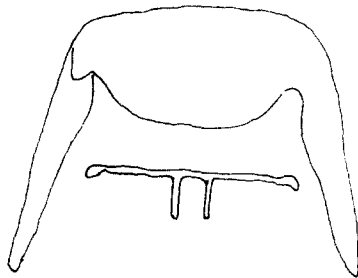
1. 帽衣, 漢倭 삼제도회. 2. 피의 착용도. 일본의 회권 17.
3. 소수의 전세실물, 일본의 복식. 에도시대 서민들이 쓰던 被衣중의 하나로 등뒤의 菊花文樣 부분이 頭部어 오도록 考案되어 만든 것이 庶民 被衣의 특징이다.
5. 여러가지 被衣 착용도. 일본의 회권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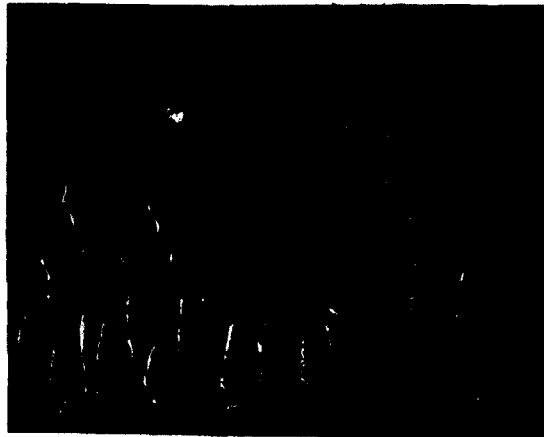
<도4>被衣, 市女笠 착용도.



<도5>壺裝束.



<도6>被衣止와 上綿



<도7>영조 정순후 嘉禮都監儀軌소재, 王妃 簪

- <도 4> 被衣, 市女笠 착용도
- <도 5> 壺裝束
- <도 6> “被衣止”와 “上綿” 1.2“被衣止”와 “上綿”
- <도 7> 영조 정순후 嘉禮都監儀軌소재, 王妃 簪.

참고문헌

- 1) 비단 경, 張三植, 大韓華辭典, 集文堂, 458,
- 2) 홀옷의 의미를 가진 경, 바로앞책, 1151.
- 3) 明의 말뜻과 同.
- 4) 古今圖書集成, 335권, 衣服部, ...華谷嚴氏曰景以之毅爲之....
- 5) 바로앞책, 동면, “...夫人嫁則錦衣加褻襜, 褻禪也國君夫人翟衣而嫁今衣 錦者塗之所服也...”
- 6) 바로앞책, 동면, 朱子曰褻儀禮作景禮記作綱古註以爲禪衣所以襲錦衣者..
- 7) 바로앞책, 동면, 禪衣, 偏禪謂之禪褌, 卽衫也....
- 8) 바로앞책, 동면, 朱子曰...縠麻織布爲縠之不知是不.
- 9) 주신, 고춘명, 중국의관 복식 대사전, 상해사서출판사, 1995, 240.
- 10) 馬之端, 中國의 婚俗, 經世書局印行, 앞책, 93.
- 11) 陳端庚, 士婚禮 服飾考, 臺灣中華書局印行, 48. <儀禮, 士婚禮>.....姆加景....
- 12) 王關士, 儀禮服飾考辨, 文史哲出版社印行, 41.“...嫁側 錦衣加褻襜側...箋..褻, 禪也, 國君夫人, 翟衣而嫁, 今衣 錦者, 在塗之所服也...”
- 13) 漢代 鄭玄註.....景之制蓋如明衣..
- 14) 論語 : ...齊必有明衣布士喪禮.....
- 15) 南朝 梁 皇極 疏 : 唐代 賈公彥의 疏, 儀禮服飾考辨, 207. : 宋代 高昇. 事物起源 권9. : 王三聘編, 古今事物考, 臺灣商務印書館 印行, 21...唐改用 生絹單衣..
- 16) 倭漢三才圖會, 浴衣”는 ‘유카다비라’의 약어로 ‘浴惟子’, ‘湯惟子’의 訓讀에서 유래 하였는데, ‘內衣’, ‘明衣’라고도 하였다. 浴衣는 목욕후, 몸의 물기를 닦기 위해서 입는 옷이다. 무로마치 末期부터 일반서민들이 여름 평상복으로 입기 시작하는데, 에도시대 중기말에 서민들이 착용되어지기 시작한 浴衣는 목욕후에도 입는옷으로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면직물로 만들어서 “單衣”의 실용성 때문에 서민들의 여름평상복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嘉永 6년(1853)년 간행된 ‘守貞漫稿’에 보면 ‘...浴衣만 착용할때는 袂(메:소매도련)을 께메지 않고, 소매도련을 께메지 않을뿐 아니라 소매도련을 원형으로 둥글려주지 않고 ‘方形’으로하여 ...그명칭을 ‘角袖’라고 하였으며.. 廣袖로 만들며, 單衣로서 평상복으로 할때는 평상시의 같은 小袖의 메(袂)로 하는 차이가 있다. 이자연, 일본복식사, 경춘사, 1999, 165. “浴衣”는, 16세기경 일본에는, 당, 명, 청대의 “外被” 유형으로, 소매가 없거나 소매가 달리고, 두터운 직물로 만들어서 “덧옷(外被)”으로 사용한, “가빠(合羽)”라는 옷이 있었는데, 이 옷이 일반인에게 보급 되기 전 까지, 일본에서는 商人婦人들의 비옷(雨衣)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明衣(: 浴衣)”
- 형 “景”이 덧옷으로 사용 된것과 兩者間에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 17) 章景明, 先秦喪服制度考, 臺灣商務印書館 印行, 民國, 75. 士喪禮...所以親身...: 장삼식, 앞책, 644. : 士喪禮, ...士喪禮明衣, 裝用布袂屬幅, 長下膝...
- 18) 추치 : 씨실과 날실을 교차로 느리게 또는 되게 하여 주름지게 짠 피륙, 葛細麻
- 19) 장삼식, 앞책, 1354.
- 20) 儀禮, 士喪禮, 禮, 喪大記.
- 21) 漢代 鄭玄의 註 : 주신, 고춘명, 중국 의관복식 대사전, 상해 사서출판사, 1995, 239.
- 22) 2부식 옷은 外被로 착용시, 부적합 하였을 것으로 婚禮時 착용된 景은, 덮어쓰기 좋은 편의성으로 통재포형 明衣形에 더 가까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 23) 古今圖書集成, 341권, 襖部, “...宮人披襖子..始有其名 陽帝...”.
- 24) 바로앞책, 동면, “.....漢文帝 立冬日賜宮侍承恩子及百官披襖子多以 五色繡羅爲之或以錦爲之...”.
- 25) 바로앞책, 동면, “...蓋袍之遺象也....”
- 26)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덧옷은, 高麗時代의 “露衣”, 일본 幕府시대의 “帽衣(被衣)”, 조선시대의 “蒙首衣(蒙頭里)”, “長衣”등의 外被衣로 발전하게 되는 것으로 유추되는 옷이다.
- 27) 西京雜記, 권 1, 8.
- 28) “..母識...西階上施衿結帨曰...皇后乘輿以降 乘重翟以几姆加幃...”이라 되어 있고, 황태자 納妃時, “...庶母及門內施絮中之以.....諸衿絮妃既出內門..輅後皇太子.....妃乘輅以几姆加幃...”이라 되어 있다. 親王 納妃時에도, “..母識女, 西階上施衿結西階之 ...衿絮.....妃出車後.....妃乘以車從者二人坐相對..姆加幃..王乃御輪 三周 ...”라 되어 있다.
- 29) 宋代 陳祥道, 禮書, ..唐志 作 景 作 幃..
- 30) 古今圖書集成, 335권.
- 31) “... 后婚之禮, 頭身 加幃, 至將拜, 姆去幃...”라 되어 있어 皇后가 嘉禮時 “幃”을 착용 하였고, 황태자 納妃時 “...出門妃 乘輅乘以几 姆加 “幃”...”이라 되어 있다.
- 32) 단곡 : 縠織, 홀으로 만든다. 王觀士, 앞책, 207.
- 33) 蔽膝은 허리 帶에 치마처럼 주름을 잡거나 撞帳처럼 주름없이 천을 붙여서 허리에 두르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조선후기, “쓸치마”, “쓰개치마”와 같으니, 여기에서 “쓰개치마”의 根源을 찾을수도 있고, 우리나라 쓰개치마의 경우, 자연 발생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다.
- 34) 明代 두봉형 外衣, 우리나라의 “천의(치네)”, “쓰개치마” 등과 같고, 일본의 “갑빠(合羽)”, “망또” 등의 外衣와 같다.
- 35) 馬智洙, 앞책, 47.

- 36) 바로 앞책, 동면, “... 遠行可障風塵, 女子出嫁側可用來障面...”
- 37) “簾帷”는 宋으로 이어져, 宋에서는 ‘蓋頭(面幕, 搭面, 花幕 등)’가 되고, 宋의 禮書類를 받아드린 우리나라에서는 高麗時代 服飾에 그 遺習을 남겨서 서경의 <高麗圖經> 및 <高麗史>에 보이는 “蒙首”, “袞裳”, 가 되고, 朝鮮 초, 중기 喪禮服의 “蓋頭”, “孝巾”, 궁중 婚禮服의 “面衣”, “面紗布”가 되고, <四禮便覽>에 보이는 士의 “景”인 ‘巾+白(머리 덮는 보자기)’이 된다.
- 38) 維帽은 隋代에 시작 하였는데, 永徽中期에 裙을 부착하여 목주변에 이르게 만들었다.“...施裙及頸...” 무紗나 靑紗로 만들어 붙였다. 維帽의 가장자리를 빙둘러 붙이거나, 氈笠의 앞면에 만 붙였다. “維帽”는 그 사용의 多益性 때문에 당, 송, 요, 금, 원, 명, 청(維帽, 幘笠帽), 고려의 幘笠(: 조선시대 名稱 “너울笠”), 일본 막부, 에도시대의, 市女笠, 조선초기의 너울, 후기의 전모 등으로 발전하여 儀禮 및 日常服用으로 定着된다.
- 39) 馬之鋪, 中國的婚俗, 經世書局印行, 92.... 輕紗頭巾之類. : 마지수, 앞책, 91.... 唐時新郎障蔽之物不·或 簾帷, 或 維帽, 或 幕羅.
- 40) [上海, 중국 방직대학 교수 고한옥 고증, 솜을 사이에 둔 경우 “斗篷”이라고 함. : 介眉, 昭陵 唐人 服飾, 三秦 出版社, 13.
- 41) 소매가 없는 對襟外被는 중국측에서 “斗篷”, 우리나라에서 천의(치네), “쓰개치마” 등이 되고, 일본의 “갑빠(合羽)”, “망또” 등이 된다.
- 42) “外被(被風)”는 “斗篷”이라고도 하며, 어깨에 둘러서 몸을 덮어 입는, 소매 없는 겹옷 이었다. 일반적으로 對襟이며, 가슴부위에서 옷고름 종류의 帶로 여며 입었다. 직령, 반령도 있었고, 흙, 겹으로, 혹은 사이에 솜을 두고 만들거나 길은 布帛, 안을 皮毛로 장식하여 입기도 하였다. 길이는 무릎 아래길이 이다. 그 제도는 짚풀 등을 엮어서 만든 雨雪防止用, ‘裘衣 : 도롱이’ 유형의 服具로, 처음에는 麻纖維로 엮어서 雨雪時에 착용하던 것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두터운 錦織으로 만드는 등, 布帛으로 제작되었고, 겨울에 주로 착용하였다. 고한옥은 唐代 闍立本이 그린, 南朝의 陳文帝像의 어깨에 걸쳐입는 것이, 無袖, 直領이며 對襟인 被風이라고 하였다.
- 43) “外被”, 중, 소매가 길거나 짧은 소매가 달리고, 地面 길이 인것은 長外被, 短外被는 복부길이, 무릎길이 이다. 紗織으로 만들어서 士女들이 외출시 착용하기도 하였다. 소매달린 외피는, 出兵將軍이 착용하는 경우, 특히 “戰被”라고 하였으며, 소매달린 外被는 3가지 종류로 그 형태를 크게 나눌수가 있고, 소매 없는 것 까지 통합시키면, 唐代 外被類는 다음과 같은 4종류로 나눌수 있다. 즉, (가) 大翻領(양쪽 翻領 근처에 달아준 帶로 묶어줌), 長袖, 外被, 對襟, 발목길이.(나) 小領(翻領이 아니며 깃은 아주 작다), 長袖, 外被, 對襟, 무릎 아래길이, 외피.(다) 大盤領 短袖(袖口는 넓다), 外被, 對襟, 무릎길이 외피 로 나눌수가 있다. (라) 無袖, 直領, 對襟의 어깨에 걸쳐 입는 형.(이 경우는 주로 “斗篷”이라고 함).
- 44) “明衣(浴衣)”, “被襖子”유형의 對襟, 소매가 달린 外被는 조선초기의 “露衣”, “蒙頭衣”, “蒙頭巾”, 일본의 “被衣(가누가쓰기: 帽衣)”가 되고 조선후기의 ‘長衣’가 된다.
- 45) 순의는 일명 衲衣라고도 하는데, 명주로 만들고, 옷색은 검붉은 玄色이며 영.수.거 옷단에 붉은 纈色으로 緣(연 : 端)장식을 한 옷이다.
- 46) “...婦車亦如之有袿...揆車裳帷...”
- 47) 하피는 고대부녀의 복식의 일종인데, 披肩과 유사하다. 晉代 부터 입기 시작 하였고, <釋名, 釋衣服>에는 帔(披 : 宋代 당시의 服名, 霞帔로 “...帔는 披와 같고, 帔는 肩背에 걸치는 것이다. 당대에도 霞帔가 있었으며, 당대이후 명부의 예복이 되었다. 開元중에 왕비이하의 통용복이 되었고, 송대는 품관자의 부인이 책봉을 받을때 賜與 받아서 입는옷 이었다. 명대는 홍무 5년에 定하기를 9품 이상 품관자의 命婦관복이 되었으며, 庶人은 婚禮시 9品服으로 입을수 있었다. 明代는 하피의 形制가 좁은 巾帶식으로 폭이 좁았으나, 清代에는 背心이 되었으며, 恩賜를 입지 않으면, 입을수 없는 부인 예복 이었다. 중국 화평출판사, 중국풍속대사전, 1990, 640-641. 하피의 宋代 服名, 霞帔, 치마, 저고리 위에 덧입는, 소매가 없고, 치마와 가지런한 길이이며, 겨드랑이 아래가 트인 背子類의 옷 이었다.
- 48) “...送醮其女而命之...姆導出於...母.起命之曰敬之戒...母送至西階上爲之整冠激帔.命之曰...諸母姑嫂妹送至於...中門之內爲...裙衫中以...姆奉女出登車...姆奉女出中門墻揖降自西階...女從之墻車轎簾以後姆辭.女及登車...”
- 49) 가마, 교차는 드나드는 곳에 簾(발)이 드리워진 轎子로, 簾이 드리워져 있어서 防寒, 防暑가 되고, 風塵으로부터 보호 받을수가 있고, 안에 新婦가 타고 앉으면, 밖에서 드러다 보이지 않도록 되어있다. 宋史, 儀禮誌.
- 50) 古今圖書集成, 권 25 婚禮部.
- 51) 주신, 고춘명, 앞책, 115. 舊時女子結婚時用以蓋頭的帛巾, 一般多作紅色, 송대 <禁染錄>권20에 보면, 兩新人并入堂前, ...以杆或用机杼挑蓋頭方露花容參拜堂次諸家神家廟.
- 52) 宋史, 與服誌.“...帝王聘禮 賜女家曰...頭梁巾段綾羅 3匹.....錦繡綾羅 30匹.....花幕...”
- 53) 150*150 센티 가량 크기.
- 54) 馬之鋪, 앞책, 91.
- 55) 宋 周輝의 “清波雜誌”, 권2.

- 56) 王三聘編, 古今事物考, 臺灣商務印書館 印行, 권6, 126.
- 57) 清代 王先謙은 釋名疏正, 권5.
- 58) 公平仲의 公氏雜說 : 주신, 고춘명, 앞책, 114.
- 59) 早羅로 만든 方 5尺(150센티 가량)크기의 친을 笠帽 주위에 내려 느린형의 帽子 : 宋 고승, 事物起源, 권3 : 주신, 고춘명, 앞책, 114.
- 60) 바로앞책, 115.
- 61) 宋史, 禮誌, 18.
- 62) "...母命之曰, ...庶母中之曰...母差保姆及侍女導從女出門乘車儀衛導前應送者乘車從於後墻先還以後..."
- 63) "...女官引指皇后前.....恭聽誠命隨意訓戒...禮畢公主易燕居冠服...門西上陸輦至右門內公主降輦騎馬搗簾公主乘輦騎馬先...公主至搗簾公主降輦..." 明會典, 洪武 3년 條.
- 64) "...妃言+旨祖宗前尊酒讀祝禮畢...父母坐於正堂...妃父母前各四拜父母隨意致誠辭妃聽受...禮畢改服翟衣..." 明會典, 洪武 26년 條, 訓戒之禮後, "親迎日內官...請王搗簾妃降輦王先行至內釋皮弁服具袞冕.....午門乘輦將至奉先殿降輦行廟見禮..." 明會典, 洪武 27년 條.
- 65) "...內 執事贊四拜畢請皇后陞堂.....曰誠之敬之...命畢...母進立於皇后之西東向施衿結紉曰勉之敬之...立西階東向執事奏請乘輿皇后降階乘輿...禮監官擁護皇后輿簿...承天門退皇后輿...前導宮人擁護皇后輿...皇后宮中內官以皇后輿輅簿簿..." 明會典, 神宗 萬曆 6년 條.
- 66) 주신, 고춘명, 앞책, 115.
- 67) 褙子 : 出嫁時 新婦가 얼굴을 덮는 大幅 方巾.
- 68) 주신, 고춘명, 앞책, 115.
- 69) 被衣는 일명 "帽衣"라고도 하였다. 漢倭 三才圖會, 衣服部, 권.98, 12
- 70) 唐代的 維帽제와 같은 것으로, 깊고 넓은骨體의 大形 笠帽의 돌래에 幘을 부착하는데 幘의 길이는 목부분, 혹은 무릎길이나 발목길로 길게 위치하도록 부착한 笠帽로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幘笠이나 조선의 너울 笠帽와 같다.
- 71) 壺裝束은 가마쿠라 시대 여성이나 남성이 表衣위에 市女笠을 쓰고, 表衣에는 허리부위에 가는 帶로 동여서 옷을 묶어 주었는데, 이를 '壺裝束'이라 하였고, 이 경우, 머리는 옷속에 집어 넣어서 숨겨진 상태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매달린 外被形 덧옷(被衣 : '가누카쓰기')을 소매속에 양팔을 집어넣고, 머리부터 덮어서 입은 다음, 그 위에 笠帽를 쓴, 出行時의 외출 복인 셈이다. 등에 걸린 붉은 끈은 掛帶라 하였고 절이나 神社를 찾을 때 차림이었다
- 72) 에도시대는 도쿠가와(德川家康)가 경장 8년 (1603 : 明의 神宗 31, 朝鮮 宣祖 36) 에도땅에 幕府를 개설하여 慶應 4년(1868 : 淸 咸豐 7년, 조선 高宗 5년) 막부가 망할 때 까지 266년간을 를 말한다.
- 73) 홍나영, 여성쓰개의 역사, 학연문화사, 1995, 115.
- 74) 이자연, 역, 일본 복식사, 경춘사, 1999, 168.
- 75) '衣' 한장을 머리에서 부터 덮어 쓰는 것을 말하였다.
- 76) A.D.1015-1017-1019-1080.
- 77) 우리나라 고려의 毅宗시대 이후, 忠肅王代, 중국의 남송, 금, 元으로 이어지는 順帝時代에 해당함. 남송의 光宗-金の 章宗 3년, 高麗 明宗부터 元의 順帝元年, 고려 충숙왕 복위 1년 까지.
- 78) 小袖란 大袖에 대응하는 말로서 예복인 表衣대수의 아래입는 窄袖의 의복 이었다. 상류계층에서 소수는 맨살에 입는 속옷, 즉 내의로 입기 시작하였으나, 무로마치 시대 중기에 의복의 일종으로 그 주체성이 확립되고, 소수가 겉옷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 ..여러가지의 문양을 넣게 되었다. 가마쿠라 시대 이후 소수가 의복의 한 종류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면서, 10-11세기경의 초기의 소수는 통수로 맨살에 입는 속옷이었으나, "...소수가 '내의' 역할을 하던 '단의'를 대신하는 새로운 내의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가마쿠라 시대 이후부터 소수는 소매 도련선을 등그러 주는 형태로 정형을 이루고 남녀모두 단의 아래 반드시 착용하였다. 이자연역, 앞책, 120-124.
- 79) 바로앞책, 113.
- 80) 바로앞책, 111.
- 81) 武家시대는 壽永 4년(1185 : 金 世宗 : 南宋 孝宗 : 高麗 明宗 15년) 단노우라에서 平家を 멸망시킨 미나모토가 정치의 장소를 가마쿠라로 옮기면서 새로운 武家정치가 시작되었다. 가마쿠라 幕府가 개설된 建久 2년(1192 : 남송 광종, 金 장종 3년, 고려 명종 22년)부터 元弘 3년(1333 : 元 영종, 순제즉위, 고려 충숙왕 2년)幕府가 망할때 까지를 말한다.
- 82) 일본 고대 복식사, 도 141.
- 83) 홍나영, 앞책, 113.
- 84) 이자연 역, 앞책, 166.
- 85) 증보문헌비고.
- 86) 바로앞책, 동면.
- 87) 고려사, 세가, 권9, 문종3
- 88) "...女官引指皇后前.....恭聽誠命隨意訓戒...禮畢公主易燕居冠服...門西上陸輦至右門內公主降輦騎馬搗簾公主乘輦騎馬先...公主至搗簾公主降輦..." 고려사 권 67, 지 21, 예 9, 公主下嫁儀.
- 89)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20권, 貴婦條, 高麗시 명칭은 '蒙首'.
- 90) 여기서 燕居用 冠服이란 嘉禮의 6禮를 행할 때 法服속에 입거나, 嘉禮를 치르는 동안 法服을 벗고 난 다음에 입는 옷이다.
- 91) 徐兢, 앞책, 20권, 貴婦條.
- 92) "...袞裳는 부인의 盛裝인데, 緇帛으로 만들었고, '蒙首'로서 얼굴을 덮는것이다....." 高麗史, 열전, 권 13, 鄭國儉條.

- 93) 150*150센티 크기.
- 94) 3폭 : 1폭 넓이, 50센티 추정, 3*50=150센티 넓이.
- 95) 8尺(150*240센티)길이.
- 96) 길이를 약간 짧게하여 騎馬에 지장이 없도록, 蒙首를 제작 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 97) 徐兢, 앞책, 22권, 女騎條.
- 98) 바로앞책, 20권, 賤使條.
- 99) 오늘날의 over coat : 오버 코트류.
- 100) 笠帽의 가장자리에 簷을 드리운 너울 笠帽.
- 101) 高麗史, 권 39, 刑法, 2.
- 102) 朝鮮에서는 中國史書類에 보이는 “景”이 “景衣”가 된다.
- 103) 국조오례의, 권3, 권4.
- 104) 왕비의 경우, 命使奉迎의 命親迎이다.
- 105) 이순홍, 한국전통 혼인고, 학연문화사, 1992, 105 .
- 106) 이왕직 간행, 조선왕조.궁중관혼제례, 105.
- 107) “...北齊시 遣使하여 冊禮후, 奉迎하였고, 唐도 遣使하여 冊禮後 奉迎하여....宋도 唐儀에 따라서 遣使 奉迎 하였다. 명도 동일 하였다. 우리도 唐, 宋, 明禮를 따라서 冊禮後 奉迎 하였다. 그러나 中宗은 禮喜에 영을 내려서 親迎之儀를 新定하고, 조선 中宗 12(1517)년 이후, 문정왕후 嘉禮時 부터 太平館을 修理하여, 殿下가 冕服을 입고 太平館에서 王妃를 親迎하였다.
- 108) ... 왕비집에 이르러 使者가 말에서 내리면,왕비가 翟衣를 갖추고 首飾을 한다.전모와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고 방에서 나와 傳母의 東北쪽에 서서 南向한다. 使者 以下가 國弓 4拜하고, 꿇어 앉는다. 주인이(왕비의 父親) “.....조심하고 공경하여 아침부터 밤까지 命을 어김이 없도록 하라...고 이른다. 어머니가 옷깃을 여며주고 수건을 매어주면서 “.....조심하고 공경하여 아침부터 밤까지 命을 어김이 없도록 하라...”고 이른다. 왕비가 訓戒 말씀 듣기를 마치면, 內侍가 輿를 받들어 올리고, 왕비가 輿에 탄다. 侍衛하여 왕비가 中門에 이르러, 왕비가 簷을 타면, 전모가 “景”을 씌워 준다음, 引導하여 대문 밖으로 簷을 타고 나가면, 使者, 宗親, 文武百官이 차례로 말을 타고 侍從하기를 보통의식과 같이 하여 大闕로 향한다.
- 109) 유송옥, 朝鮮王朝 宮中 儀軌服飾, 수학사, 1991, 앞책, 48.
- 110) 바로앞책, 등면.
- 111) “.....景如明衣”導禦塵...”
- 112) 國婚定例, 尙房定例, 嘉禮都監儀軌.
- 113) 왕세자 친영의를 보면, 왕세자가 초계 禮를 마친후, 親迎을 舉行하기 하루전, 왕세자의 簾次를 세자빈의 집 大門밖에 설치한다. 당일에 世子の 輦이 大門밖에 이르면, 輦에서 내리기를 찬청한다. 王世子가 輦

에서 내려서 막차로 들어 간다. 主人(世子嬪의 아버지)은 世子の 輦이 대문에 이를 즈음하여 祠堂에 告하고 이를 마치면, 房中에서 딸에게 醮禮를 실시한다. 親迎禮時,王世子가 자리에 나아가서 기러기를 드리고 2번 절한다. 傳母가 世子嬪을 인도하여 나오는데, 전모는 왼쪽에 保姆는 오른쪽에 있다. 어머니가 옷깃을 여며주고 허리에 매단 수건을 매어주면서, ..” 힘쓰고 恭敬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어김이 없이하라”고 타이른다.

- 114) 國婚定例, 尙房定例, 嘉禮都監儀軌.